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 아시아태평양잼버리 참가자를 중심으로*

류시영** · 강방훈***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행복감 제고라는 관계를 통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학업과 입시에 따른 계속된 경쟁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문제의 치유를 위해 여가활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2010 아시아태평양잼버리대회에 참가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0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기술통계, 신뢰도·타당도 검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활동 중 교육적, 환경적, 사회적, 신체적 만족이 긍정적 자기평가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정적 자기평가에는 교육적 만족이 부(-)²의 영향을, 환경적 만족이 정(+)³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체험활동, 자아존중감, 행복감, 여가만족, 농촌체험

* 본 연구는 2012년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과제번호: PJ008562)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논문은 2012년 한국관광연구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구원, tourist0@korea.kr

***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교신저자, ipmkbh@korea.kr

I. 서 론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왕따에 의한 중고생의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으며, 그러한 일련의 사건에 의해 청소년 문제가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학교폭력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사춘기를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시기이다.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기는 정의적인 측면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입시경쟁으로 인해 인지적 측면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2011)는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청소년 핵심 역량진단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적 도구 활용역량은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36개국 중 35위에 머물러, 우리 교육이 지적 능력 개발에 집중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과도한 교육 열 때문에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대단한 심리적 압박감, 긴장, 성적부진에 따른 좌절 등을 겪게 된다. 이 모든 경험은 결국 청소년 자신과 사회 간의 긴장관계를 더욱 고조시키게(조명호, 김정오, 권석만, 1994:61) 되는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왕따→ 우울증→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정신 건강 문제가 청소년 문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조인희, 2012).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미래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복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볼 필요(전경숙, 정태연, 2009)가 있지만, 우리의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학업에 몰두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학업성적 지상주의에 빠져 삶의 질을 논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이영관, 2007).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이며 청소년기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는데 필요한 자질을 계발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오늘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박미석, 조혜진, 2002).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가지는 청소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이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여러 연

구를 통해 발견되고(권세원, 이애현, 송인한, 2012) 있으며, 이에 사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과 행복 등의 대한 의미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가활동 참여는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차경호, 2004)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는 여가시간의 상대적 증가에 비하여 참다운 여가기회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여가시간의 확보뿐만이 아니라 확보된 여가시간의 활용방안과 그 효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우리나라 중고생들은 정규수업 이외에도 과외학습 등 치열한 입시경쟁이란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적·사회적·교육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여가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김세련, 2006).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또 교육이 인간을 위한 활동이라면, 교육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해야 할 것(이지현, 2009:86)이며, 우리의 학교교육과 여가교육 역시 행복한 청소년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미국 속담 중에는 “공부만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는 말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최근 이상봉, 류시영과 송운강(2011)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여가를 잘 즐기는 방법’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잘 노는 것’ 즉, 체험활동과 같은 여가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하며,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된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의 치유를 위해 여가활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여가활동 경험의 역할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최근 들어 긍정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삶의 질이나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관광분야에서도 여가경험과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생활만족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람마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장 주목받아 온 것은 경제적 안정을 비롯한 경제·사회적 요인이다. 그런데 경제·사회적 요인이 삶의 만족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삶의 만족에 경제·사회적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가 이 변수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한편으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박희봉, 이희창, 2005).

한국사회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서, 심리학에서도 최근에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전경숙, 정태연, 2009)졌으며, 관련 학문분야, 예컨대 여가, 사회복지, 문화, 교육 분야에서도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느끼거나 흡족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신의 삶의 상황이나 여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의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 잘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Sumner, 1996:146, 156; 이지현, 2009:86에서 재인용).

김민경(2011)은 대학생의 행복을 현상학적으로 규명하였는데, 행복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정서, 긍정적 의미부여 등과 함께 감사와 만족감이 기저로 자리잡을 때 행복을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행복의 다양성이 추구된다면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학생 시절 봉사,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참여,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행복 경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건전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은 청소년들의 신체적·심리적·지적 발달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능동적인 인간, 규칙을 지키고 공정성을 존중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집단적 상호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은 자신

의 발견과 질서의식, 책임의식과 함께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성을 발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권이중, 1992; 김세련, 2006: 428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 역시 삶의 만족과 행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여가학 분야에서는 여가활동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연구하면서 특히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여가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Neulinger(1982)는 여행경험의 양(量)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여행경험의 부족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였고, Gilbert와 Abdullah(2004)는 휴가경험이 개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김채옥과 송운강(2006)은 여행경험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정순(2005)은 여행을 통해 얻게 되는 여행만족이 심리적·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박진경(2010)은 여가만족이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송영민과 이영진(2011)은 부모, 친구, 물질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가에 만족할 경우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청소년학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안녕감, 행복감과 같은 정서적 측면의 향상과 여가활동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회생활적응 및 건강한 인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자기 자신과 주변의 객관적인 환경요소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김선희, 김창현, 2009).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변화 및 발달은 인생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지만 청소년기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른 발달단계보다도 이 시기에 더 활발하고,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한 폐해 또한 청소년기에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관계이지만 학교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으며, 방과 후 자유 시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서 제고될 수 있다(오정학, 김철원, 하명희, 2012).

자아존중감의 개념에 대해 Rosenberg(1979)는 자신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sic] 태도”라고 정의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자신

감과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자신감은 당면한 어떤 장애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자기수용(self-acceptance)과 자기존경(self-respect),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감정 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박미현, 2008).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적응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알려져 왔으며(정은의, 노안영, 2007), 여가 및 심리 관련 연구(박진경, 2010; 배소심, 오현옥, 2005; 정은의, 노안영, 2007) 결과를 볼 때 삶의 질 또는 생활만족과 상관이 있거나 예측력이 높은 선행변수로 논의되고 있다.

이미리(2005)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해 가족 혹은 친구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발달의 주요 맥락인 학업, 여가, 직업 관련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가족과 친구의 영향 못지않게 때로는 더 의미 있게 학업을 비롯한 여가, 직업 관련 요인들의 영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송수지 등(2012)은 다층성장모형을 통해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경험은 청소년기 자아개념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이광수와 김관진(2010)은 여가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에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밝히며, 여가에 대한 만족은 삶의 활력소 역할을 해주고 긍정적인 사고능력 향상과 욕구충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권세원 등(2012)은 청소년탄력성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하여 주관적 건강,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행동,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 지역사회관계가 행복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적절한 여가교육과 환경의 부재로 여가본래의 특성이나 기능에 부합하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여가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여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신의 여가생활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심신의 조화라는 인간육성의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때 형성된 여가선용의 학습과 능력은 평생동안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며 일탈행동으로의 청소년비행을 차단하는 기저로 작용할 것이다(박미석,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김경아, 2001).

이에 청소년기 건강의 중요성을 사회가 공감하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권세원 외, 2012)이며, 최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교육청과 관계 기관에서는 학생행복지수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학생의 정서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 논의한 선행연구 결과와 정책으로 볼 때, 청소년의 여가경험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체험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심리학과 사회학을 위시한 제반 사회과학 연구에서 행복감이라는 용어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주관적 안녕복지(Subjective Well-being),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등의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어 왔고(조명호 외, 1994:64),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말은 행복감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Argyle, 2001)는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체험활동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여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경험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채옥, 송운강, 2006; 박진경, 2010; 송수지 외, 2012; 송영민, 이영진, 2011; 이정순, 전월배, 2005)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권세원 외, 2012; 배소심, 오현옥, 2005; 정은의, 노안영, 2007)를 토대로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체험활동 만족의 하위요인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에 영향이 있고, 다

시 행복감 요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논리 하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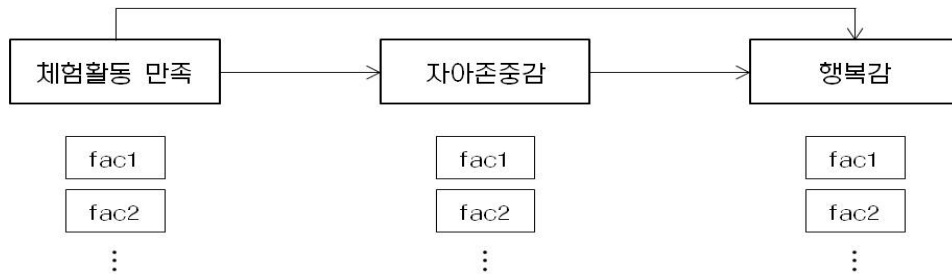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설1: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3: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2. 연구대상: 제27회 아시아태평양잼버리(Asia Pacific Jamboree)

잼버리(jamboree)는 북미 인디언의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지닌 시바아리(shivaree)란 말이 전음화된 것이며,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문화교류와 친교활동을 통해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국제적인 축제이다.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8-10명이 한 팀을 이루는 반제도를 통해 대자연 속에서 야영과 모험활동을 경험하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다(한국스카우트연맹 보도자료, 2010).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지난 2010년 8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남 순천에서 제27회 아시아태평양잼버리를 개최하였으며 42개국에서 약 12,0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다.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와락, 스카우트 지구를 꺼안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27회 아·태잼버리에서는 생존야영, 패러글라이딩 등 모험 활동과 생태환경탐사를 포함한 친환경 활동 등 프로그램 70여개가 마련되었다. 참가 대원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과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구환경을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학교의 공식적 체험활동/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과는 달리 잼버리는 대원들의 자율에 의해 참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이며, 과정 활동을 하는 동안 야영생활과 단체생활, 다양한 나라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여가체험활동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 조사설계 및 자료처리

1) 표집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27회 아시아태평양잼버리에 참가한 한국 청소년 스카우트대원으로 정하였다. 제27회 아·태잼버리에서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서바이벌, 인공암벽등반, 자전거트레킹, 전통체험, 바나나보트와 래프팅, 생태환경탐사 등의 체험활동과 투어프로그램을 순천시 전역에서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조사시기는 아·태잼버리 기간중인 2010년 8월 6일(토)부터 7일(일)까지 2일간 진행하였으며, 조사시간은 오후에 과정활동을 수행한 후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표본추출은 해당 시간대에 과정활동을 마친 참가대원을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문지의 응답률을 높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의 주제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와 대학원생 4명이 응답자에게 설문을 나누어주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체험활동 만족, 자아존중감, 행복, 일반적 특성 등 크게 4 부분으로 구분되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측정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아니다 ↔ 7점 매우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체험활동 만족은 Ragheb과 Beard(1980)가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여 여가스포츠 만족을 연구한 김대권(2010)의 연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아미(2004)의 여가 만족 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을 토대로 6개 영역(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만족), 총 2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승인양상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Rogenberg(1965)가 개발하고 배소심과 오현옥(2005), 정은의와 노안영(2007) 등이 이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긍정적 측면의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내용의 자아존중감의 10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행복감은 Hills와 Argyle(2002)의 옥스퍼드 행복척도 설문지(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OHQ)에 제시된 29개 행복 측정 항목 중에서 단축형 행복척도(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8개 측정 문항 만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적 의미의 항목은 역코딩(reverse coding)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잼버리 참가경험, 성별, 연령, 재학 중인 학년, 거주지 항목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은 PAW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타당도 검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도

표 1
체험만족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공통성	Cronbach α
교육적 만족	나의 모습과 능력	.756	4.569	19.036	.678	.898
	성취감	.748			.711	
	자부심	.736			.734	
	지식 습득	.716			.645	
	자아 발견	.696			.600	
	프로그램 흥미	.631			.547	
	새로운 것 시도	.630			.558	
	타인 이해	.487			.522	
환경적 만족	공간이 보기 좋음	.838	3.370	14.042	.838	.900
	공간이 잘 꾸며짐	.811			.831	
	공간이 신선 및 깨끗	.756			.727	
	공간이 흥미로움	.705			.714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 아시아태평양잼버리 참가자를 중심으로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공통성	Cronbach α
휴식적 만족	휴식	.816	3.251	13.547	.754	.902
	정서적 안정	.777			.842	
	스트레스 해소	.723			.774	
	있는 자체가 좋음	.659			.740	
사회적 만족	타인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	.764	3.011	12.545	.689	.838
	타인들과 사회적 교류	.746			.680	
	대원들과 밀접한 관계	.702			.745	
	참가자들이 좋음	.694			.584	
신체적 만족	체력증진에 도움	.884	2.676	11.148	.831	.847
	나의 신체적 능력 시험	.711			.710	
	건강에 도움	.680			.695	
	신체적인 활력소	.621			.725	

충분산설명력(%)=70.319, K-M-O 측도 = 0.918

Bartlett's 구형성검증: Approx. Chi-Square=3057.808(df=276), Sig.=.000

본 연구에서는 다항목으로 측정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 검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통한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척도는 선행연구의 조사도구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이 아닌 탐색적으로 측정항목의 구성영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체험활동 만족 항목의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요인 1은 교육적 만족으로, 요인 2는 환경적 만족으로, 요인 3은 휴식적 만족으로, 요인 4는 사회적 만족으로, 요인 5는 신체적 만족으로 명명하였다. 최초 설문문항 구성시 선행연구를 토대로 6개의 체험요인으로 구성하였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초로 설계한 심리적 만족과 교육적 만족의 항목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교육적 영향이 청소년의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이를 교육적 만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는 위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2

자아존중감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공통성	Cronbach α
긍정적 자기 평가	나는 긍정적인 사람	.819	3.234	35.936	.699	.864
	좋은 집	.811			.667	
	나에 대해 만족스럽다	.799			.668	
	가치 있는 사람	.781			.634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748			.576	
부정적 자기 평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880	2.641	29.345	.790	.820
	좋은 점이 전혀 없다	.837			.739	
	나를 소중히 여기는 먼 부족	.727			.534	
	실패자	.726			.569	

충분산설명력(%)=65.281, K-M-O 측도 = 0.785
 Bartlett's 구형성검증: Approx. Chi-Square=842.000(df=36), Sig. =.000

이어 총 10개 문항으로 측정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는 공통성이 0.4 이하로 낮게 나타난 ‘나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항목을 제거한 후, 다시 9개의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2개의 요인으로 묶여졌다. 처음 설문문항 설계 시에 긍정적 내용의 질문과 부정적 의미의 문항을 각 5개씩 구성하였고, 분석결과 표 2와 같이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2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행복감을 측정한 단축형 옥스퍼드 행복지수 8개 문항의 데이터 정제과정에서 항목 제거 시 Cronbach α 값이 증가하는 ‘나는 특별하게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갖고 있지 않다’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를 제외한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요인 1은 자아개념으로, 요인 2는 생활만족으로, 요인 3은 우울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표 3

행복감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공통성	Cronbach α
자아 개념	아름다움 발견	.850	2.085	29.785	.749	.773
	나를 맞출 수 있다	.831			.703	
	정신적으로 깨어 있다	.750			.646	
생활 만족	나의 삶은 보람있다	.919	1.714	24.489	.866	.814
	내인생의 많은 부분에 매우 만족	.855			.831	
우울	나는 매력적이지 않다	.860	1.456	20.795	.756	.610
	나 자신이 특별히 만족스럽지 않다	.801			.703	

총분산설명력(%)=75.069, K-M-O 측도 = 0.723
 Bartlett's 구형성검증: Approx. Chi-Square=405.656(df=21), Sig. =.000

IV.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연구의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해 잼버리가 개최된 전라남도 순천청소년수련소에 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0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203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에 세 부적인 사항은 다음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구분			
		빈도(명)	구성비(%)			빈도(명)	구성비(%)
참가횟수	1회	128	63.1	학력	중등재학	148	72.9
	2회	46	22.7		고등재학	55	27.1
	3회이상	17	12.3		서울	45	22.2
성별	남자	131	64.5	거주지	경기, 인천	23	11.3
	여자	72	35.5		충청권	32	15.8
연령	14세이하	78	38.4	강원	18	8.9	
	15세	33	16.3	전라권	61	30.0	
	16세	39	19.2	경상권	17	8.4	
	17세	25	12.3	제주	7	3.4	
	18세이상	28	13.8	합계	203	100.0	

2. 주요 변수 상관관계 분석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위의 표 5와 같다. 체험활동 만족의 교육적·환경적·휴식적·사회적·신체적 만족은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자기평가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정적 자기평가와는 교육적 만족만이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다른 체험활동 만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의 하위 변수들이 행복감의 자아개념, 생활만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우울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	1									
2	.475**	1								
3	.557**	.691**	1							
4	.622**	.445**	.475**	1						
5	.581**	.506**	.518**	.540**	1					
6	.428**	.216**	.228**	.479**	.468**	1				
7	-.158*	.083	.002	-.086	-.120	-.372**	1			
8	.400**	.230**	.248**	.371**	.358**	.596**	-.172*	1		
9	.285**	.256**	.190**	.295**	.344**	.482**	-.385**	.402**	1	
10	-.267**	-.055	-.146*	-.188**	-.140*	-.417**	.576**	-.264**	-.301**	1

주1) 1=교육적 만족, 2=환경적 만족, 3=휴식적 만족, 4=사회적 만족, 5=신체적 만족, 6=긍정적 자기평가, 7=부정적 자기평가, 8=자아개념, 9=생활만족, 10=우울

주2) * $p < 0.05$, ** $p < 0.01$

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준화 경로계수만을 다음의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아존중감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자기평가에는 환경적 만족을 제외한 체험활동에서 느끼는 교육적 측면의 만족, 휴식에 대한 만족, 사회적 만족과 신체적 만족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자기평가에는 체험활동의 교육적 만족이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환경적 만족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경이 너무 뛰어나거나 경우 부러움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레 추론해보며,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긍정적 자기평가는 행복감의 하위요인인 자아개념, 생활만족, 우울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부정적 자기평가는 생활만족과 우울 요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험활동 만족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육적 만족이 행복감의 자아개념에, 환경적 만족이 생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요인들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경험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채옥, 송운강, 2006; 이정순, 2005; Gilbert & Abdullah, 2004)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행복감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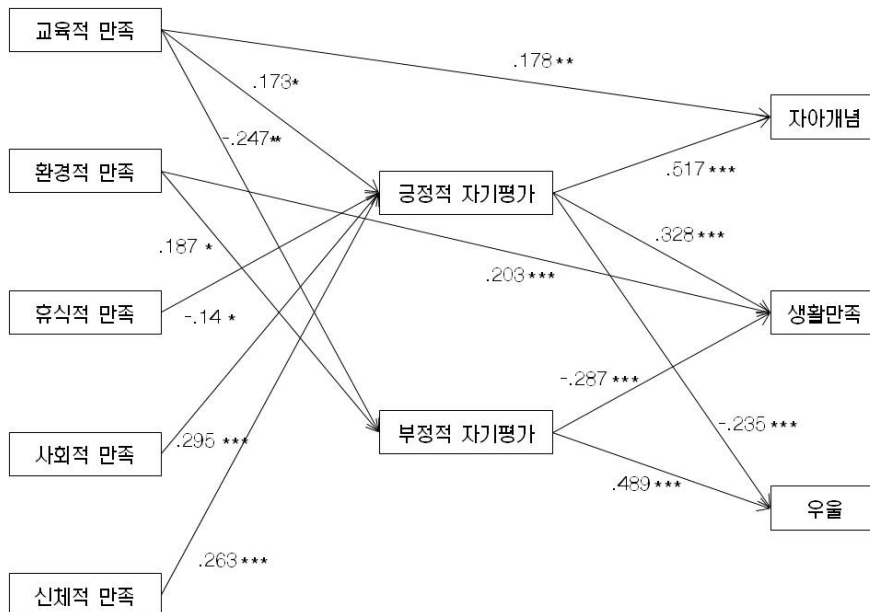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검증

적합도 지수: $\chi^2(df)=15.134(20)$, $p=.769$, $\chi^2/df=.757$, GFI=.985, AGFI=.960, NFI=.982, CFI=1.00, RMR=.049, RMSEA=.000, TLI=1.014, PNFI=.436,

* $p<0.05$, ** $p<0.01$, *** $p<0.001$

표 6

경로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총효과	직접	간접	CR	P
긍정적 자기평가	교육적 만족	0.173	0.173	0.000	2.098	0.036
	환경적 만족	-0.070	-0.070	0.000	-0.842	0.400
	휴식적 만족	-0.140	-0.140	0.000	-1.972	0.049
	사회적 만족	0.295	0.295	0.000	3.993	0.000
	신체적 만족	0.263	0.263	0.000	3.606	0.000
부정적 자기평가	교육적 만족	-0.247	-0.247	0.000	-3.202	0.001
	환경적 만족	0.187	0.187	0.000	2.507	0.012
	휴식적 만족	0.027	0.027	0.000	0.267	0.790
	사회적 만족	-0.005	-0.005	0.000	-0.050	0.960
	신체적 만족	-0.129	-0.129	0.000	-1.420	0.156
자아개념	교육적 만족	0.267	0.178	0.089	2.923	0.003
	환경적 만족	-0.008	0.019	-0.026	0.231	0.817
	휴식적 만족	-0.034	0.027	-0.060	0.319	0.749
	사회적 만족	0.162	0.002	0.161	0.020	0.984
	신체적 만족	0.158	-0.002	0.160	-0.020	0.984
	긍정적 자기평가	0.517	0.517	0.000	8.422	0.000
	부정적 자기평가	0.051	0.051	0.000	0.829	0.407
생활만족	교육적 만족	0.085	-0.020	0.105	-0.239	0.811
	환경적 만족	0.149	0.203	-0.054	3.377	0.000
	휴식적 만족	-0.124	-0.083	-0.042	-0.953	0.340
	사회적 만족	0.119	0.029	0.090	0.358	0.721
	신체적 만족	0.227	0.098	0.128	1.225	0.221
	긍정적 자기평가	0.328	0.328	0.000	5.101	0.000
	부정적 자기평가	-0.287	-0.287	0.000	-4.641	0.000
우울	교육적 만족	-0.262	-0.126	-0.136	-1.588	0.112
	환경적 만족	0.144	0.017	0.127	0.213	0.832
	휴식적 만족	-0.077	-0.117	0.040	-1.436	0.151
	사회적 만족	-0.059	0.013	-0.072	0.176	0.860
	신체적 만족	0.011	0.146	-0.135	1.927	0.054
	긍정적 자기평가	-0.235	-0.235	0.000	-3.958	0.000
	부정적 자기평가	0.489	0.489	0.000	8.246	0.000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chi^2=15.134$, $df=20$, $p=0.769$, $\chi^2/df=.757$, $RMR=0.049$, $RMSEA=0.000$, $GFI=0.985$, $AGFI=0.960$, $TLI=1.014$ 등 모든 적합도 지수¹⁾가 최적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이 현실의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로계수 수치는 위의 표 6에 제시하였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행복감 제고라는 관계를 통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학업과 입시에 따른 계속된 경쟁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문제의 치유를 위해 여가활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010 아시아태평양장애비리대회에 참가한 한국 청소년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참가한 동료들과 친해지고 사회적인 교류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려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체험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될수록 자신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줄어들지만, 체험 환경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 역시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험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휴식,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를 해소 등에 대한 휴식적 만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긍정적 자기평가가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은 자아에 대한 확신과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활에 대해 만족하게 되며,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자

1) 적합도 판정은 $\chi^2/df < 2$, $p > 0.05$, $RMR < 0.05$, $RMSEA < 0.08$, $GFI > 0.9$, $AGFI > 0.9$, $NFI > 0.9$, $TLI > 0.9$, $PNFI > 0.6$ 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기평가는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체성 형성 측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줄어들수록 생활에 대해 보다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우울감 역시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체험활동 만족이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육적 만족이 행복감의 자아개념에, 환경적 만족이 생활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요인들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행복감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최근 수면위로 올라온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한 두 번의 체험활동으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야외활동이 중심이 되는 잼버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결과를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여가활동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대안 중 하나로 자연, 생태, 문화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농촌체험을 통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이유는 경험을 통한 성취감, 자기 효능감을 맛보려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또래와의 작업을 통해 적절한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함께 긍정적 자아를 갖게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농촌진흥청, 2005). 이는 청소년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잼버리의 과정 활동과 같이 농산어촌에서 소규모 그룹단위로 체험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잼버리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농산어촌 체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다소 비약적인 접근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휴'를 밟으면서 체험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들어 학교의 수학여행도 전교생이 함께 이동하는 형태에서 학급별 수학여행으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의 현장학습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은 교육형 방문지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초·

중·고교의 현장학습 또는 체험학습이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협조하여 농촌체험 배우처 제도나 교육형 생태체험 인증제를 개발하는 등 제도적 측면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농산어촌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유치원·초·중등학교의 현장학습과 체험학습이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위해서 자연과 생태환경 역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잼버리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표본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옥스퍼드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정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였는가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이 결과를 학교 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체험활동 측면에서 탐색하면서,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삶의 ‘어떤’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농촌체험 활동으로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권세원, 이애현, 송인한 (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모델(Adolescent Resilience Model)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권이중 (1992). **사회교육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0-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대권 (2010). 여가스포츠 참가가 사회적지지, 여가만족 및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1), 147-159.
- 김민경 (2011). 대학생의 '행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0), 1-34.
- 김선희, 김창현 (2009). 청소년의 여가활동유형별 참여정도와 자아존중감, 효능감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6, 425-436.
- 김세련 (2006). 여가활동과 주오생의 사회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농촌 체험관광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제60차 학술심포지엄 및 연구논문 발표논문집**, 428-440.
- 김채욱, 송운장 (2006). 관광과 삶의 질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20(2), 217-235.
- 농촌진흥청 (2005). **도시가족의 영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수원: 농촌진흥청.
- 박미석,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김경아 (2001). 밀레니엄에서의 청소년 문화창조를 위한 생태학적 지원체계(VI): 청소년의 공간 및 정보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9(9), 103-120.
- 박미석, 조혜진 (2002).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지**, 17, 67-88.
- 박미현 (2008). **중년여성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진경 (2010). 여가만족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관광연구**, 16, 45-60.
- 박희봉, 이희창 (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 배소심, 오현욱 (2005). 댄스스포츠참여자의 스포츠동기와 자아존중감, 생활만족의 관계.

- 한국체육학회지, 44(5), 743-755.
- 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청소년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21-147.
- 송영민, 이영진 (2011). 청소년 스트레스 완화요인으로써 여가만족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609-634.
- 오정학, 김철원, 하명희 (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26(2), 23-40.
- 이광수, 김관진 (2010). 대학생의 여가스포츠 참여 동기와 라이프스타일이 여가만족, 여가몰입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2), 59-70.
-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이영관 (2007). 여가동기와 여가활동유형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19(4), 343-359.
- 이상봉, 류시영, 송운강 (2011). 수학여행 참가 청소년의 심리적 행복감 변화. **관광연구저널**, 25(4), 71-84.
- 이정순 (2005). 관광활동, 관광·여가만족, 웰빙지각과의 관계. **관광연구**, 19(3), 75-99.
- 이정순, 전원배 (2005). 관광활동, 심리적 Well-Being, 주관적 Well-Being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19(1), 139-152.
- 이지현 (2009). 행복과 교육: 그 연관성의 예비적 고찰. **교육연구**, 32, 58-103.
- 진경숙, 정태연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33-153.
- 정은의, 노안영 (2007).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간 관계: 개별성-관계성의 조절효과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1), 59-82.
- 조명호, 김정오, 권석만 (1994).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2), 61-94.
- 조아미 (2004). 청소년의 여가동기가 여가만족도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333-353.
- 조인희 (2012.4.19). 시론: 양지로 나와야 할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한국일보**, p. 32.

- 차경호 (2004). 자아존중감 및 여가활동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과과의 관계. *여가학연구*, 2(2), 27-38.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1). 201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 지수 국제 비교. 한국방정환재단 홈페이지 http://www.korsofa.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78에서 2012년 8월 12일 인출.
- 한국스카우트연맹 보도자료 (2010). 잼버리하면! 신나는 과정활동!. 한국스카우트연맹 홈페이지 <http://www.scout.or.kr> 에서 2010년 8월 10일 인출.
- Argyle, M. (2001). *The psychology of happiness* (2nd ed.). London: Routledge.
- Gilbert, D., & Abdullah, J. (2004). Holiday-taking and the sense of well-being. *Annals of Tourism Research*, 31(1), 103-121.
- Hills, P., & Argyle, M.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071-1082.
- Neulinger, J. (1982). Leisure lack and the quality of life: The broadening scope of the leisure professional. *Leisure Studies*, 1(1), 55-64.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umner, L. W. (1996). *Welfare, happiness & ethnics*. Oxford: Clarendon Press.

ABSTRACT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happiness*

Ryu, Si-Young** · Kang, Banghun**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Leisure Experiences on their self-esteem and happiness. Data were collected from 203 participants who attended the Asia-Pacific Jamboree Program in August 2010. This study was carried out us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out of four Adolescents' Leisure Experiences factors, that is; educational, aesthetic, social and physical satisfac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ositive Self-Evaluations of the subjects.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of Adolescents' Leisure Experience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Negative Self-Evaluation of the subjects, while aesthetic satisfac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ir Negative Self-Evaluation. Finally, Positive Self-Evaluation of Self-Esteem was observed to influence the adolescents' happiness, whereas Negative Self-Evaluation of Self-Esteem partly impacted on the adolescents' happiness. These results reveal that Adolescents' Leisure Experiences may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hei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s' leisure experiences, self-esteem, happiness, leisure satisfaction, rural experience

투고일 : 6월 5일, 심사일 : 9월 3일, 심사완료일 : 9월 3일

*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DA.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